

## 2. 탈출기

탈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흔히 '구약성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 내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집안의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30(600)년 동안 엄청난 수(탈출시 장정만 60만, 이국인, 가축)로 늘어났고,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이집트의 새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태어나는 히브리 아기를 강물에 던지게 하는 등 혹독하게 탄압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세를 부르시어 고통과 절망의 상황 안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내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계약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고 하느님께서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그들이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똑바로 가면 보름이면 끝날 여행길을 40년이라는 길고 고된 여정으로 이끄시며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훈육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탈출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역사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선 자신들의 삶을 쇄신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시나이 산에서 맺어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도록 촉구합니다.

나아가 탈출기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에 의해 완성될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 체험과 삶을 통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복지를 향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순례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스카의 의미, 시나이 계약과 계명, 이스라엘을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만든 광야의 체험, 만남의 천막을 통한 하느님의 현존, 인간이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과 통교하는 데 필요한 제사제도와 사제직 등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